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박통희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E W H A N E W S

이화소식

창립 120주년
**Frontier
 Ewha**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 이사야 60:1 -



2006.03.24 제74호

2005 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_02

교육관 B동 봉헌식_03

EGPP장학생들 이화에 오다_04

경영전문대학원 개설_06

이화인 신임 법관 및 교원 대거 임용_17

이화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_20

Welcome to EWhA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인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GPP)의 첫 장학생들

200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낮은 곳에 눈 두는 참다운 여성지도자 되기

3600명이 넘는 이화인들이 각자 갖고 닦은 소중한 꿈을 안고 세상속으로의 가슴 설레이는 도전을 시작했다.

2월 27일(월·오후2시) 대강당에서 열린 200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사진)에서 학사 2684명, 석사 865명, 박사 82명 등 총 3631명의 졸업생들이 영예로운 학위와 함께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신인령 총장은 정든 이화를 떠나는데 이들에게 “올해는 이화가 두 번째 회갑, 즉 이주갑(二周甲)을 맞는 창립

120주년의 해”라면서 “이화 창립의 스승들이 ‘샅군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고 가르쳐 왔듯이 항상 앞을 내다보면서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모험을 두려워말고 변화에 동참하라”고 당부했다.

신 총장은 또한 “낙관적이고 진취적이며 겸손한 자세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



는 것이 바로 이화의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분열과 이기주의의 시대에 편 가르기 하지 않는 창조적 통합의 일꾼, 낮은 곳에 눈을 두는 참다운 ‘여성지도자’로 뿌리내리라”고 역설했다.

이번 학부 학위수여자 중 가장 높은 학점을 기록한 학생은 생활환경대학 의류직물학 전공의 황지현 씨. 4.3만점에 4.23을 받은 황 씨는 지난 2월, 정부가 수여하는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금혼학칙

폐지 후 재입학한 30~70대 만학도 11명이 늦깎이 졸업을 해 눈길을 끌었다.

40년 만에 이화 교정을 밟은 김혜성(교육·53학번)씨는 74세의 고령인데다 학업 중 남편과 사별하는 우환을 겪으면서도 끈기있게 학업을 마쳐 많은 이들의 진심어린 축하를 받았다.

화제의 졸업생

캠퍼스의 왕언니들 20~40년 만에 ‘꿈의 학사모’

“이화의 졸업장을 받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40년을 돌아와서야 당당한 이화 선배가 되었네요.” 무려 20~40년 만에 학사모를 쓰게 된 금

혼학칙 관련 재입학생 11명은 졸업식 내내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57학번 김이환(영문·68세)씨는 “지난해 3월 처음 재입학 때는 인터넷 커녕 프린트도 못해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파워포인트로 발표도 할 수 있다”며 “손녀뻘 되는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지난 1년 간의 학창생활이 “로

또 당첨보다 더한 행운의 시간”이었다고, 그는 또 재입학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포크댄스’ 사건을 뽑았다.



“학사모가 자랑스러워요” 재입학 만학도들이 졸업의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

“연대 남학생이 포크댄스 수업 들으러 왔다가 하필 나랑 짝이 됐지 뭐야. 어찌나 미안하던지...^^”

최은선(도자예술·54세)씨는 1975년 결혼과 동시에 학교를 떠났다가 2003년 가을에 재입학한 만학도. 동대문시장에서 아동용 모자가게를 운영

하는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밤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3~4시간 잠을 잔 뒤 다시 등교해 밤 11시까지 학교에 남아 실기 작업을 진행하곤 했다”며 “좋아서 한 일이라 힘든 줄도 몰랐다”고 회고했다.

81학번 허순이(체육·46세)씨 역시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중견 인테리어업체 사장, 늦깎이 대학생으로 1인 3역을 하며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허씨는 “항상 공부에 몰랐었는데 이제 드디어 한을 풀게 됐다”며 감회를 드러냈다. <효>

사범대학 교육관 B동 완공

21세기 이끌 선진 교원 교육의 산실

본교 사범대학의 위상을 한단계 높여줄 선진 교원교육의 산실, 교육관 B동이 1년 10개월의 공사 끝에 완공되어 3월 10일(금·오전 10시) 교육관 앞에서 봉헌됐다. 이날 봉헌식에는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 이화학당 명예이사장, 신인령 총장, 안병영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교내외 귀빈 200여명이 사범대학의 새 보금자리 탄생을 축하했다.

신인령 총장은 “교육관 B동의 신축으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사범대학 11개 학과와 교육대학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면서 “사범대학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대학에 선정된 바 있는 이화 사범대학이 이제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화된 공간 속에서 21세기 한국 교원교육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병영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교원교육 90년 역사를 이끌어온 이대 사범대학이 새 터전을 갖게 된 것은 한국 교육의 전체 맥락에서도 경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진정성이 담



(왼쪽부터)우복희 학교법인 이화학당 상임이사, 김정식 정림건축회장, 정의숙 이화학당 명예이사장,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안병영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신인령 총장, 이종수 현대건설 부사장.

는 탁트인 공간 창조 등 효율성과 심미적 기능을 고려한 최신 공법으로 설계됐다.

이날 봉헌식에서는 설계를 맡은 문진호 정림건설 사장과 시공을 담당한 현대건설 이시중 사장, 박준성 상무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건물 설립에 크게 공헌한 이틀(김종일, 윤순희 외 총 195명 25개 단체)의 이름을 새겨 넣은 동판 제막식도 가졌다. <호>

긴 정성어린 교육을 한다는 점이 바로 이대 사범대학의 힘”이라면서 “앞으로도 한국 교원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및 연구시설, 교수연구실로 사용될 교육관 B동은 지하 2층, 지상 6층에 연면적 1만360㎡(3134평) 규모의 건축물. 기존의 교육관 A동과도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육과 행정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 가스엔진 히트 펌프(G.H.P)시스템을 이용한 최신 공기 조화 설비, 1층 로비의 5색 자연 채광 유리 천정, 트러스 공법을 이용한 기둥 없

약학분야의 수월성 다시한번 입증

약대, 2005 대교협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

본교 약학대학(학장 김춘미 교수)이 한국대학 교육협회의 주관하는 2005년 대학학문분야 평가에서 약학분야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전국의 20개 약학대학 중 학부는 본교, 경희대, 성균관대 등 8곳, 대학원은 본교, 서울대, 성균관대 단 3곳만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본교 약대는 학부(98.37점)와 대학원(97.78점) 모두 최우수 평가를 얻었다.

김춘미 약대학장은 “우리 약학대학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면서 “이화의 뛰어난 교육 커리큘럼, 우수교원 확충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약대는 지난해 전임교수 6명을 충원한데 이어 분자생명과학부 교수 2명을 겸임교수로 임명, 현재 26명의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학부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2분반에서 3분반으로 나눠 강의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도 했다.

대학 학문분야평가는 ▲교육의 목표 및 과정 ▲교수 ▲학생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발전 계획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본교는 2005년도 대학 8개 학문분야평가에 약학 분야만 참여했다. 2004년 대학학문분야평가에서 본교는 신문방송·광고홍보학분야에서 전국 1위(학부 및 대학원), 생물·생명공학분야에서 대학원 1위, 학부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2005년도 교육대학원 평가에서 본교 교육대학원(원장 김성원 교수)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진, 교육여건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우수’ 판정을 받았다. 2005년도 교육대학원 평가는 전국의 사범대학 및 교육과가 설치된 50개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대학 장래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에서 본교는 교수·학습 부문에서는 ‘최우수’, 선발 부문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출범

본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원장 양옥경 교수)이 오랜 준비 끝에 석·박사 학위과정 전공생 60명을 모집(경쟁률 3.4:1)하고 이번 학기부터 정식 개원했다. 기존 학부 과정의 사회복지학 전공, 일반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 특수대학원의 사회복지대학원을 통합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크게 임상과 정책 전공으로 나뉘며, ‘아동/청소년/학교’ ‘여성/가족’ ‘노인/장애인’ ‘의료/정신보건’ ‘지역복지 및 기관관리’ ‘정책분석 및 개발’ 등의 세부 분야를 개설했다.

대학원장 양옥경 교수는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성 함양에 박차를 가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사회복지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선진국 뿐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복지적 정의와 전문성이 실현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1947년 설립된 본교 사회복지학과는 이 분야에서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명성을 쌓아왔으며, 학부와 대학원 모두 2002년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분야별 평가 최우수(1등), 1999년과 2004년 중앙일보 학과평가 연속 1등을 기록한 바 있다. <민>

EGPP 첫 장학생 24명, 이화에 첫 발

“이화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하늘이 주신 선물”



성부 법률부서에서 일하다보니 저절로 여성인권과 민주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EGPP 장학생 대표는 케냐의 무틴다 아델라이드(국제학부·21세·사진 왼쪽)씨가 맡았다. “두고 온 고향이 그림경지만 열심히 공부해 조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는 24일 입학식에서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신입생 대표 선서를 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 다른 케냐 학생인 가철키 조세핀(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20세)씨는 한국의 첨단 컴퓨터 공학을 배워 식민지 국가였던 모국의 정보화에 기여할 생각이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출신 3인방은 한류 열풍을 타고 나란히 언론홍보영상학부를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태국의 와자샷 타차 폰(18세)씨는 “드라마를 통해 접했던 한국의 뛰어난 영상문화를 배워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화여대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하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프리카 모잠비크 출신의 첫 이대생 우띠 나디아(건축학·18세)씨는 한국에 온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배우의 기회를 얻기 위해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 한국을 찾았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고층건물에 올라 탄성이 절로 나왔다”는 그녀의 꿈은 튼튼한 집을 짓는 건축가. “이화에서 건축학을 배워 내전으로 건물이 파괴된 고국에 튼튼한 집과 다리를 짓겠다”는 꿈을 펼쳐보였다.

본교가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 이하 EGPP)’의 첫 장학생 24명(학부 13명, 석사 8명, 박사 3명)이 이번 학기부터 이화인으로서는 생활을 시작했다.

31개국 130명의 응시자 중 엄격한 전형절차를 거쳐 선발된 이들의 국적은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태국, 모잠비크, 케냐, 파라과이 등 14개국. 베트남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케냐,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도 3명이나 된다. 이들의 생김새는 제각각이었지만 이화의 새내기가 됐다는 설렘은 똑같아 보였다.

“내 꿈은 아프카니스탄 대통령”

아프카니스탄에서 온 라슬리 자하라(사회과학부·22세)씨는 “여성과 인권을 공부해 아프카니스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너무 큰 꿈이 아니냐는 우문에는 “대통령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헌답. 자국의 여

할아버지 나라 찾은 고려인 4세도

마드비 바택(사회학 박사과정·31세)씨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다가 EGPP에 지원한 케이스. 네팔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많아 사회학을 선택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소이 라리사(영문학 석사과정·22세)씨와 우즈베키스탄의 김 올가(생활환경학부·25세)씨 두 사람은 고려인 4세.

올가씨는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았다.

박사과정에 지원한 통티 안(한국학·29세)씨는 베트남 하노이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어 강사를 했을 정도의 한국통(通). 베트남에서 ‘한국 전래동화’와 ‘한국 옛날이야기’ 두 권을 번역 출판한 바 있는 그는 “한국과 베트남의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의례문화를 비교하는 논문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신인령 총장은 “120년 전 미지의 땅 조선에서 여성 교육을 시작한 스코랜트 여사를 기려 개발도상국의 여성 인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EGPP 장학생들과 함께 이화는 글로벌 대학으로서 국제화된 교육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GPP 장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여학연수비 등을 전액 지원받으며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다.

본교는 앞으로도 매년 30명 내외의 EGPP 장학생을 선발, 국제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호>

창조적 교육 역량 강화로 이화의 새 시대 선도할 진용 갖춰

2006학년도 1학기 보직인사

2006학년도 1학기 보직인사가 발표됐다(2월 1일자, 3월 1일자).
대학원장에 조 형 교수,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에 양옥경 교수 등이 임명되었다.

보직명	성명	소속	비고
대학원장	조 형	사회학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양옥경	사회복지학	
교육대학원장	김성원	과학교육	
정보과학대학원장			
정책과학대학원장	안홍식	경제학	유임
사회과학대학장			
신학대학원장	양명수	기독교학	유임
경영대학원장	서윤석	경영학	유임
경영대학장			
인문과학대학장	이배웅	사 학	
사범대학장	주영주	교육공학	유임
중등교육연구소장			
간호과학대학장	신경림	간호과학	
간호과학연구소장			
평생교육원장	이영애	심리학	
입학처장	황규호	교육학	
기획처부장(기획)	정태운	법 학	
총무처부장(총무/인사)	성효현	사회생활학	
재무처부장(예산/회계/구매)	차은영	경제학	
자금팀장			
연구처부장	조경숙	환경공학	
산학협력단부장			
교육	장윤재	기독교학	유임
교육	안선희	기독교학	유임
자연사박물관장	최재천	생명과학	
자연사연구소장			
대학보건소장	전선희	의 학	유임
출판부장	김용숙	불어불문학	유임
이화미디어센터주간	이재경	언론홍보영상학	
이화미디어센터부주간	김민정	영어영문학	
이화미디어센터부주간	주철환	언론홍보영상학	
발달장애아동센터소장	김영태	특수교육	
기숙사관장	김경숙	체육학	유임
여성지도력개발센터소장	김계주	여성지도력개발센터	유임
국제회의센터소장	황혜진	국제사무학	
한국어성원장	오정화	영어영문학	유임
정보통신연구소부소장	이민수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유임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소장	김명희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유임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부소장	이병욱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유임
국가인적자원개발연구원부위원장	이근주	행정학	
사회복지연구소장	김성이	사회복지학	
인문학연구소장	정재서	중어중문학	유임
기호학연구소장	최민서	독어독문학	유임
여성신학연구소장	이경숙	기독교학	유임
영미학연구소장	서 숙	영어영문학	유임
사회과학연구소장	조성남	사회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장	김훈순	언론홍보영상학	
나노·바이오기술연구소장	김성진	나노부/화학	유임
환경문제연구소장	박석순	환경공학	유임
교육과학연구소장	김안나	교육학	
교과교육연구소장	강순희	과학교육	
특수교육연구소장	이소현	특수교육	
교육습지도실장	정재삼	교육공학	
법학연구소장	장영민	법 학	유임
아시아식품영양연구소장	오상석	식품공학	
국제대학원교학부장	박인희	국제학	유임
통역번역대학원교학부장	이윤희	통역학	
사회복지전문대학원교학부장	노총래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대학원교학부장			
디자인대학원교학부장	김정혜	패션디자인	
실용음악대학원교학부장	최유리	실용음악학	유임
경영대학원교학부장	정문중	경영학	
대학원디자인미디어학부장	김원웅	미디어	유임



조 형 교수



양옥경 교수



김성원 교수



이배웅 교수



신경림 교수



이영애 교수



황규호 교수

보직명	성명	소속	비고
대학원지역연구협동과정주임교수	남궁곤	정치외교학	
대학원북한학협동과정주임교수	김석향	북한학협동과정	
북한학연구계전공주임교수			
대학원리더십학협동과정주임교수	김정선	사회학	
국제대학원한국학과장	이해영	한국학	
인문과학부장	김준환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전공주임교수	이수미	불어불문학	
행정학전공주임교수	강민아	행정학	
문화정보학전공주임교수	이상용	문화정보학	
사회복지학전공주임교수	노총래	사회복지학	
심리학전공주임교수	이혜원	심리학	
수리물리과학부장	윤정호	수 학	
물리학전공주임교수	조원림	물리학	
통계학전공주임교수	임용빈	통계학	
생명과학전공주임교수	송준임	생명과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장	용환승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주임교수			
건축학부장	김광수	건축학	
환경·식품공학부장	강호정	환경공학	
환경공학전공주임교수			
식품공학전공주임교수	김광옥	식품공학	
음악대학교학부장	채문경	간반악기	
간반악기과장	함영림	간반악기	
관현악과장	송재광	관현악	
성악과장	신지화	성 악	
작곡과장	김홍민	작 곡	
한국음악과	박영근	한국음악	
조형예술학부장	박일호	회화·판화	
미술학부장	우순옥	회화·판화	유임
회화·판화전공주임교수			
디자인학부장	최유미	시각정보디자인	
디자인정보디자인전공주임교수			
환경디자인전공주임교수	김연정	환경디자인	
패션디자인전공주임교수	김정혜	패션디자인	
섬유예술전공주임교수	차영순	섬유예술	
체육과학대학교학부장	김명숙	무 용	
무용과장			
사범대학교학부장	정영란	과학교육	
중등교육연구소연구개발부장			
교육학과장	서경혜	교육학	
도덕·윤리교육연구계전공주임교수			
국어교육과장	서 혁	국어교육	
국제사무학전공주임교수	전지현	국제사무학	
간호과학대학교학부장	양숙자	간호과학	
간호학과과장			
국제학부장	Jean S. Kang	국제학	
정보보호학연구계전공주임교수	이향숙	수 학	유임
재무경제연구계전공주임교수	김상택	경제학	
공통사회연구계전공주임교수	이영민	사회생활학	
공통과학연구계전공주임교수	우애자	과학교육	
해부학교실주임교수	한후재	의 학	유임
생화학교실주임교수	김형래	의 학	유임
미생물학교실주임교수	서주영	의 학	유임
뇌신경과학교실주임교수	오세만	의 학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권복규	의 학	
소아과학교실주임교수	서정원	의 학	유임
산부인과학교실주임교수	전선희	의 학	유임
비뇨기과학교실주임교수	정우식	의 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주임교수	최혜영	의 학	유임
기초과학연구소장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실장	이동희	생명과학/분생부	유임
평생교육원교학실장	김애련	평생교육원	유임

이화 MBA 배출한다

9월, 경영전문대학원 (MBA) 신설

오는 9월, 본교에 경영전문대학원(MBA)이 들어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본교 및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에 경영전문대학원 설치를 (예비)인가함에 따라 본교는 오는 5월부터 140명(주간 70, 야간 70)의 신입생을 모집, 9월부터 본격적인 MBA 교육을 시작한다. 경영전문대학원은 이론 중심의 일반 경영대학원과 달리 현장사례 연구와 인턴십 등 미국식 MBA과정을 접목해 전문 비즈니스맨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윤석 경영대학장은 “이화 MBA는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100위권에 진입한다는 비전아래 이화만의 차별화된 특화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CEO형 인재, 즉 정직하며(Candor), 뛰어난 전문성(Excellency)과 국제적 시각 및 유연성, 합리성을 갖춘(Openness)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업과 대학의 우수 여성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 MBA 교육 프로그램은 1학기를 2개의 미니 학기(7.5주)로 나누는 미니-학기제, 산업체 경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점 대체제, 멘토 교수를 지정해 맞춤형 학사지도와 경력개발을 도와주는 CEO Institute제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창립 120주년
Frontier Ewha



창립 120주년 슬로건 및 엠블렘

Frontier Ewha 이화, 즐겁게 세상을 흔들어라

본교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슬로건이 “Frontier Ewha”로 결정됐다. 또 재학생들의 아이디어로 그간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해온 캐치 프레이즈 “이화, 세상을 즐겁게 흔들어라”도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총장)는 “몇가지 안을 놓고 논의해 오다 이화가 창립 이후 개척자 정신으로 일관해 왔으며 현재도 구조개혁 등 남보다 한발 앞서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감안해, 이화 정신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Frontier Ewha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동안 홈페이지 및 창립기념 행사의 포스터, 리플렛 등에 사용할 120주년 기념 엠블렘도 함께 완성됐다. 교내 색채디자인연구소(소장 최경실 교수)가 제

작한 기념 엠블렘은 기존의 고정된 심볼을 탈피, 프린트용 뿐만 아니라 웹상에서도 플렉시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한 것이 특징.

이화를 상징하는 배꽃 문양안에 ‘1886-2006, EWhA’가 새겨져 있고 이를 세계 및 글로벌을 상징하는 자유로운 원형과, 참여와 나눔의 의미를 반영한 작은 원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플렉시 형태로 활용될 때는 이화의 수월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빛이 반짝이며 가로질러 움직이는 효과를 내도록 했다. 창립 120주년 슬로건과 엠블렘은 3월22일부터 소폭 개편된 학교 홈페이지와 창립 기념 행사, 기념품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화
프런티어
장학생

“상상 초월, 미지를 향한 당당한 도전”

이화인의 힘과 꿈으로 전 세계를 누비다

올 봄, 이화 교정에 국경을 초월한 모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창립 120주년 기념으로 본교가 지난 겨울 ‘이화인의 힘과 꿈’이라는 주제 공모를 통해 선발한 ‘이화 프런티어 장학생’ 120명(팀)이 그 주인공들.

“20일 동안 영상 4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서 매일 도로를 닦았어요.” 유네스코의 국제자원봉사활동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마을 도로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메디우스 페디우스(Medius Fedius)’ 팀의 민소라, 김효정(국제학부 4년)씨(사진). “전에는 아프리카를 미개한 곳으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탄자니아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경험을 살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마법을 보고 왔어요.” 김마리아(경영



3년)씨를 포함해 5명으로 꾸려진 미라쿨러스 크리스마스팀은 재작년 쓰나미로 인해 고통받은 스리랑카의 고산지대 마을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돌아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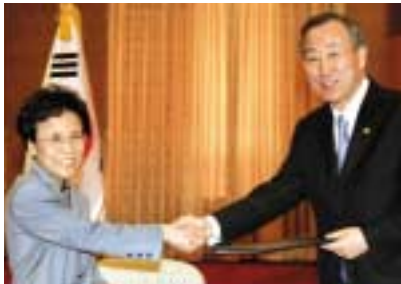
다. 여러 마을을 돌며 어린 아이들에게 캐럴 연주, 수화공연, 공기놀이, 제기차기, 줄넘기 등을 선보인 것. 5인의 산타들도 소감을 전한다.

“작은 미소와 도움만으로 아이들을 웃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자살예방버스를 타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의 국내 각지를 다니며 청소년 자살의 예방 목소리를 전한 ‘살자웃자팀(구현리(광고홍보 4년)와 3인)’,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내 간헐 하천의 중금속 오염도를 분석한 환경수호의 프런티어, 연금술사팀(김희정(환경공학 3년)와 3인) 등 다양각색의 경험을 쌓고 온 당찬 프런티어 장학생들이 외친다.

“버린 것은 세상에 대한 무지와 편견, 얻은 것은 자신감과 새로운 눈입니다.”

외교통상부와 관·학 협력 약정 체결 대사급 외무공무원에게 생생한 외교 경험 배운다



본교가 앞으로 대사급 외무공무원들을 매년 한두명씩 겸임교수로 임용, 이들이 외교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실천 경험을 본교 재학생 및 교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 신인령 총장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3월 21일(화·오전11시30분) 외교통상부(18층 리셉션홀)에서 대사급 외무공무원의 본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임용을 골자로 하는 관·학협력 약정을 체결했다(사진).

이 약정에 따라 겸임교수로 초빙된 외무공무원은 국제대학원에서 1학기에 1강좌를 강의하며 외교통상연계 전공의 연구 및 학술관련 제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재임기간은 6개월~1년이며 합의에 따라 연임도 가능하다.

신인령 총장은 “이번 협정으로 외교관의 풍부한 외교 경험과 실무지식이 학생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인적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성공적인 관·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화여대와는 이미 일정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으나 이번 체결로 더욱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히고 외무공무원들의 생생한 강의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6학년도 입학 전형 결과 우수 신입생 3359명생 선발

정시모집 경쟁률 4.2:1

본교 2006학년도 입학 전형이 1월 19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수시 1·2 전형과 정시모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했다.

수시 모집에서의 논술고사가 이번 입시부터 도입되었으며, 일부 전형은 예전 계열별 선발을 모집단위별 선발하는 등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경쟁률은 수시1학기가 16.0:1, 수시2학기가 10.6:1을 기록하는 등 예년에 비해 높았으며, 정시 모집은 4.2:1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수시 1학기모집

전형별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2학기모집의 특별활동 우수자 특별전형이 수시1학기로 앞당겨 실시됐고, 문학창작 특기자 특별전형이 특기자 및 특수재능 보유자 특별전형에서 분리, 개별전형으로 치러졌다. 이번에 처음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한 일반우수자 전형은 226명 모집에 4579명이 몰려 20.2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문학창작특기자 특별전형에서 인문과학부 10명을 선발했으며, 비교과 영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활동 우수자 특별전형에서 40명을, 수시1학기에만 선발하는 국제학부 72명을 국제학 전문인 특별전형을 통해 뽑았다.

수시 2학기모집

9월부터 총 7개의 전형이 실시됐다. 고교추천 특별전형은 학업능력 이외에도 재학시절의 지도력과 특정영역의 우수성을 비중있게 평가하여 160명을, 성적 우수자 특별전형에서는 422명을 선발했다. 신설된 실업계고교 특별전형은 고교 재학시절의 학업능력과 지도력이 남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원 외 7명을 뽑았다. 미래과학자 특별전형과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은 각각 70명씩 선발했으며, 조형예술 우수자 특별전형은 실기의 비중을 높게 두어 63명을 뽑았다. 수능 직후 치러진 고교수학능력 우수자 특별전형에서는 수능성적을 중점적으로 평가, 국제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지원한 총 1만440명중 800명을 선발했다.

정시 모집

12월부터 시작된 정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 1686명, 사회기여자 및 소녀가장 20명과 정원외 특별전형인 농어촌 특별전형 70명,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8명의 총 1784명을 선발했다.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과 학생부의 반영 교과군을 각기 다르게 하고, 자연과학대학 및 공과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및 과학탐구 영역만을 반영하여 우선 선발하는 방식 등을 적용했다.

2007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2007학년도 본교 입학전형은 전형제도를 다양화하여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해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본교 입학전형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각 전형 유형에 맞는 최적의 전형요소를 보다 구체화하여 학생들에게 진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고자 한다.

수시1학기모집에서는 일반 우수자 전형, 특별활동 우수자, 문학창작 특기자, 국제학전문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10%인 318명을 선발한다. 수시2학기모집에서는 고교추천을 비롯한 총 8개 전형을 통해 1730명 이내에서 선발하며, 정시모집 일반전형과 사회기여자와 소녀가장 특별전형을 통해 잔여인원을 선발한다.

또한 수시2학기의 실업계고교 특별전형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정시모집의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 외로 208명 내외를 선발한다.

2007학년도부터 학부편제가 전면 조정되어 모집단위의 변동이 입시에 반영되므로 이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대학과의 조율을 통하여 각 모집단위의 이전 특색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선발하고자 하였다.

주요 특징

■ 학부편제 조정에 따른 모집 단위의 변화

- 1) 음악대학, 조형예술대학, 체육과학대학 무용과, 생활환경대학 의류직물학전공의 모집인원을 2007학년도 학부편제 조정에 따라 신설된 예술대학의 음악학부,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무용과, 의류학과에서 각각 선발.
- 2)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간호과학대학 생활환경대학 식품영양학전공, 사범대학 보건교육과의 모집인원을 2007학년도 학부편제 조정에 따라 신설된 건강과학대학의 체육학과, 간호과학부, 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에서 각각 선발.
- 3)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안전발달전공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소비자학전공으로 이전하여 해당 인원을 선발.

■ 수시2학기모집: 전공별 편중을 막고 전공별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위해, 인문과학대학(고교수학능력 우수자 특별전형) 및 조형예술학부(조형예술 우수자 특별전형)를 전공별로 선발.

■ 정시모집: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인원을 기존의 70명에서 100명을 증원하여 선발.

이화 교육의 새 패러다임 선보일 우수 교원 영입

2006학년도 상반기 신입교수 50명

최재천 석좌교수(생명과학), 심현보 교수(분자생명과학) 등 50명이 2006학년도 상반기 신입교수로 임용되었다. 본교는 이화의 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해 우수 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심현보 교수



이상기 교수



김동하 교수



김영독 교수



류한영 교수



노 용 교수



송정식 교수



이승아 교수



공 정 교수



Rainer Vollmer 교수



정혜중 교수



안선희 교수



장윤재 교수



박정수 교수



조정래 교수



안현의 교수



이승연 교수



손은정 교수



김석향 교수



최대석 교수



송종우 교수



최재천 교수



류창수 교수



정명수 교수



박진병 교수

대학(원)	전공/학과	성명	직위	최종 출신학교	최종학위
대학원	분자생명과학부	심현보	조교수	Texas A & M Univ.	Ph. D.
		이상기	부교수	Univ. of Missouri/Columbia	Ph. D.
	나노과학부	김동하	조교수	서울대	공학박사
		김영독	전임강사	Freie Universität Berlin(독)	Dr. Rer.Nat
교육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류한영	전임강사	George Washington Univ.	Dr. Science
	교육학과	노 용	조교수	Justus-Liebig-Universität(독)	Dr. Phil.
	인문과학부	송정식	전임강사	Nagoya Univ.(일)	문학박사
	영어영문학전공	이승아	전임강사	이화여대 / Univ. of Cambridge(영)	문학박사/Ph. D.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전공	공 정	조교수	북단대(중)	문학사
	독어독문학전공	Rainer Völlmer	전임강사	Ludwig-Maximilians Univ.(독)	M.A.
	사학전공	정혜중	전임강사	동경대(일)	문학박사
	기독교학전공	안선희	조교수	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ät(독)	Dr. Theol.
		장윤재	조교수	Union Theological Seminary	Ph. D.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박정수	부교수	Univ. of Pittsburgh	Ph. D.
		조정래	전임강사	Univ. of North Carolina	Ph. D.
		안현의	조교수	Univ. of Wisconsin-Madison	Ph. D.
	심리학전공	이승연	전임강사	Univ. of Iowa	Ph. D.
		손은정	전임강사	이화여대	문학박사
		김석향	부교수	Univ. of Georgia	Ph. D.
자연과학대학	북한학협동과정	최대석	부교수	Claremont Univ.	Ph. D.
	통계학전공	송종우	조교수	Univ. of Chicago	Ph. D.
	생명과학전공	최재천	석좌교수[교수]	Harvard Univ.	Ph. D.
	건축학부	류창수	전임강사	AA School(영)	M.Arch.
공과대학	식품공학전공	정명수	조교수	Univ. of Minnesota	Ph. D.
		박진병	전임강사	E.T.H. Zürich(스)	Dr.sc.nat

2006학년도 1학기 승진 교원

교무처(처장 송덕수 교수)는 2006학년도 1학기 승진교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학기 평균 승진율은 61.1%이다.

교수 윤영은(영어영문) 양명수(기독교) 이항숙(수학) 김 명(컴퓨터·정보통신공학) 김정해(패션디자인) 함정해(체육) 홍용희(유아교육) 김희진(유아교육) 박은혜(특수교육) 성순희(의학) 이경은(의학) 문일환(의학) 김광호(의학) 김화정(약학) 정순희(소인발) 부교수 이종린(분자생명과학) 정현주(교육학(교대원)) 정우숙(국어국문) 신하윤(중어중문) 유성경(심리) 임혜숙(컴퓨터·정보통신공학) 송승영(건축) 우순옥(회화·판화) 박숙영(조소) 김민경(초등교육) 여성희(과학교육) 김은갑(경영) 신경식(경영) 조민선(의학) 정성애(의학) 정혜경(의학) 임원정(의학) 문병인(의학) 이령아(의학) 김유경(의학) 이인성(의류직물) 조교수 박은혜(작곡) 김연정(환경디자인) 박승하(체육) 박경옥(보건교육) 권영주(약학) Jean S. Kang(국제학부) Susan Oak(교양영어실)

2006학년도 1학기 연구년 개시 교원

1년 연구년 이경림(분자생명과학) 정우숙(국어국문) 박승혁(영어영문) 진승권(사회) 장필화(여성학) 안창림(물리학) 박준우(화학) 김화성(건반악기) 이상국(약학) 김화영(식품영양) 1년(분할) 연구년 조기숙(국제학부) 김용숙(불어불문) 함동주(사학) 이규성(철학) 김아영(심리) 반년 연구년 이난희(독어독문) 이인숙(생명과학) 임석재(건축) 정화순(의학)

2006학년도 1학기 우수 교원

- 강의우수 (전임교원) 장미영(독어독문) 김성현(경제) 박지연(특수교육) 김영석(법학) 박혜영(약학) (시간강사) 이수경(인문과학) 최영순(경제)
- 연구실적 우수 강상원(분자생명과학) 이원재(분자생명과학)
- 연구비우수 (최우수) 이서구(분자생명과학) 최진호(나노과학) 남원우(나노과학) 김은실(여성학) 이혜숙(수학) 박일홍(물리학) 최경실(환경디자인) 김호근(경영) 신경식(경영) 김대기(약학) 김미경(식품영양) (우수) 이광주(분자생명과학) 윤영대(분자생명과학) 오구택(분자생명과학) 권종범(분자생명과학) 한인영(사회복지) 김현국(국어국문) 이재돈(중어중문) 전수용(영어영문) 최민숙(독어독문) 김영미(사학) 이영애(심리) 허라금(여성학) 조윤희(물리) 조경숙(환경공학) 박선기(환경공학) 심현섭(특수교육) 한인식(과학교육) 이상국(약학) 여윤경(소비디자인발달)



윤승현 교수



김인성 교수



이원준 교수



이승연 교수



차미희 교수



최민식 교수



서혁 교수



이승욱 교수



배재현 교수



백지연 교수



최정운 교수



김성은 교수



주은연 교수



이재길 교수



김재광 교수



전루민 교수



심성신 교수



황지영 교수



배아란 교수



배하석 교수



천혜정 교수



Greg J. Skwarok 교수



David E. Doms 교수



Byron R. Davies 교수

대학(원)	전공/학과	성명	직위	최종 출신학교	최종학위
음대학	작곡과	윤승현	전임강사	Univ. of Maryland	D.M.A.
조형예술대학	시각정보디자인전공	김인성	전임강사	Yale Univ.	M.F.A.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이원준	전임강사	Univ. of South Carolina	Ph. D.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이승연	전임강사	Columbia Univ.	Ed. D.
	사회생활학과	차미희	조교수	고려대	문학박사/교육학박사
		최민식	조교수	Univ. of Massachusetts	Ph. D.
		서혁	부교수	서울대	교육학박사
법과대학	법학과	이승욱	부교수	서울대	법학박사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배재현	부교수	Columbia Univ.	Ph. D.
	국제사무학전공	백지연	전임강사	Ohio State Univ.	Ph. D.
의과대학	의학과(약리학)	최정운	조교수	서울대	의학박사
	의학과(내과학)	김성은	조교수	이화여대	의학박사
	의학과(신경과학)	주은연	조교수	이화여대	의학박사
	의학과(외과학)	이재길	조교수	연세대	의학박사
	의학과(정형외과학)	김재광	조교수	서울대	의학박사
	의학과(안과학)	전루민	조교수	이화여대	의학박사
	의학과(진단방사선과학)	심성신	조교수	이화여대	의학박사
		황지영	조교수	이화여대	의학박사
	의학과(치과학)	배아란	조교수	경희대	치의학박사
	의학과(재활의학)	배하석	조교수	고려대	의학박사
생활환경대학	소비자디자인발달학전공	천혜정	조교수	Univ of Minnesota	Ph. D.
교무처	교양영어실	Greg J. Skwarok	전임강사	Univ. of Southern Queensland	M. Ed.
		David E. Doms	전임강사	Univ. of Birmingham	M.A.
		Byron R. Davies	전임강사	Univ. of London(영)	M.A.
		문혜진	전임강사	Duke Univ.	M.A.



문혜진 교수

정년퇴임교수 프로필

“마음만은 이화에 두고 갑니다”

① 재직기간 | ② 공적 및 활동 사항 | ③ 이화인을 위한 한마디



유장희 교수(국제학)

- ① 1997년 3월 부임, 9년 재직
- ② 국제통상협력분야의 전문가로 본교 국제대학원을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명문으로 육성·발전시켜왔다. 미국 클라크대, 버지니아 주립대, 서울대 등에서 명강의를 펼쳐왔던 유 교수는 1992~97년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장 재직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본교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 8월부터는 대외부총장직을 맡아 이화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했다.

③ 이화는 독특하고 값진 ‘교육계의 명작’이다. 학생, 교수, 직원, 동문이 혼연 일체가 되어 120년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화에 재직할 것을 최고의 영예로 알고 그 발전 대열에 계속 동참할 것이다. 이화 정신이 널리 전파되어 타 대학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김치수 교수(불문)

- ① 1979년 8월 부임, 26년 6개월 재직
- ②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문학자이자 한국문학 비평가, 기호학 연구자. 1966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평론 부문 입상 이후 다수의 비평집을 발간했으며 현대 문학상(평론부문), 제3회 팔봉비평문학상 등을 수상

했다. 1995년에는 불문학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프랑스 문화훈장을 받았다. 한국불어불문학회장, 한국기호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본교 통역번역대학원 신설을 주도, 1997년부터 4년간 초대 원장을 지냈다.

③ 그동안 제자들의 성장을 지켜보았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앞으로도 이화인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화가 우리나라 지식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기를 당부한다.



이동렬 교수(심리)

- ① 1999년 9월 부임, 6년 6개월 재직
- ② 국내외에서 상담심리학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자로 1997년 미국 상담심리학회지에 의해 ‘세계 상담과정 분야의 대표 연구가 2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본교 재직시 BK21, 한국사회거버넌스 교육

연구단의 공동연구원을 역임하며 한국적인 상담을 모색,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학자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수필가, 색소폰 연주가, 서예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③ 요즘 학생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어 안타깝다. 학점이나 평가, 취업도 중요하지만 예술이나 우정을 추구하며 내적가치를 쌓는 것도 필요하다.



김신자 교수(성악)

- ① 1985년 9월 부임, 20년 6개월 재직
- ② 세계를 누빈 한국의 대표 메조 소프라노로서 특히 오페라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였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뉴욕 시립 오페라단 단원을 거쳐 독일의 킬 오페라단, 프랑크푸르트 오페라단 등

의 대형 오페라 무대에서 명성을 떨쳤다.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 예술제에 초청되어 국내 무대에 첫 선을 보인 이래 500여회의 연주회에 출연, 1998년 대한민국 음악상을 수상했다.

③ 제자들이 자신만의 색깔있는 음악세계를 만들며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있었다. 미래의 주역으로서 스스로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자신감으로 생활할 것을 당부한다.



김영기 교수(시각정보디자인)

- ① 1971년 3월 부임, 35년 재직
- ② 한국인의 전통적인 조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온 시각 디자인 분야의 대가. ‘한국인의 조형의식’을 비롯한 7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 및 학술 발표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1994년 디자인학회장, 2002년 한국인포디자인협회장을 맡아 새로운 디자인학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본

교 조형예술대학장, 디자인대학원장, 디자인코리아 연구원장, 디자인특성화 사업단장 등의 보직을 통해 이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③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와 이화의 디자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져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화인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기쁨을 위해 오늘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건널 수 있는 인내 또한 능력임을 강조하고 싶다.



서영석 교수(의학)

- ① 2001년 9월 부임, 4년 6개월 재직
- ②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발전에 앞장서 온 의학자. 특히 체질인류학 및 발생학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 수행으로 유전자 탐색과 발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대한체질인류학회장, 대한해부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해부학회지 편집위원장과 해부학 용어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부학 발전을 이끌어 왔다.

③ 이화에서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 열심히 공부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의료인이 되려면 먼저 자기 건강을 갖추고 타인의 정신적인 환경까지도 돌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위대함과 귀중함이다.

교수동정

박일홍 교수팀과 이원재 교수팀 2006년 '창의적연구진흥사업'으로 선정



본교 박일홍 교수(물리·왼쪽 사진)의 'MEMS 우주망원경 연구단'과 이원재 교수(분자생명)의 '생체 공생 시스템 연구단'이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권오갑)의 2006년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됐다. 이들은 3월16일 발표된 최종 10개 사업단에 포함됐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집중 육

성하여 핵심 원천기술 및 미래 신사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총 325억 원대 규모로 향후 9년간 각 연구단별로 매년 5억~8억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박일홍 교수팀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술에 기초한 차세대 우주망원경을 자체 개발, 향후 국제우주정거장 또는 인공위성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EMS 망원경은 박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제안한 기술로 그간 선진국 등에서 만든 고비용의 대형우주망원경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교수는 "이화의 ST(Space Technology, 우주기술, 천체, 천문 포함) 분야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장내세균 조절 기전을 최초로 규명해 사이언스지에 게재했던 이원재 교수팀은 "장과 장내세균과의 공생 시스템의 원리를 연구, 장내세균이 장의 생리에 미치는 '생리학적 유익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며 이 연구를 응용, 만성 장 염증 질환의 발병 원인 및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화가 축적해온 분자생물학과학분야의 경쟁력을 한번더 인정받은 셈"이라고 기뻐했다.

손연수 교수팀 항암 물질 개발해 美 특허 등록



나노과학부 손연수 석좌교수가 이끄는 생리기능분자연구실팀이 새로운 항암 물질을 개발, 최근 미국에 특허를 등록했다.

이 물질은 20~50나노미터 크기의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암물질로 무기·유기 하이브리드 고분자에 백금착물을 결합시킨 폴리포스파젠-백금(II) 착물 복합체이다.

연구팀은 이 항암제를 정맥에 투여할 경우 정상조직 대비 암 조직에 최고 10배까지 항암제가 분포된다는 실험결과를 도출했다. 손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항암 물질은 아시아에서 발생률이 높은 위암에 특효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앞으로 임상 실험 후 상품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수동정



김명희 교수(컴퓨터)

1월 24일 한국공학한림원 2006년도 정회원으로 선임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기술 분야 석학들의 모임으로, 김 교수는 의학 및 생명공학과 정보공학을 접목해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한 점을 인정받아 여성 최초로 정회원으로 선임됐다.

양종만 교수(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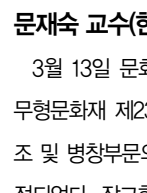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장기 풍선(LDB)을 이용한 지상 40km 고에너지 우주선 실험을 위해 남극의 미국 기지인 Mc Murdo Station에 다녀왔다.

이 실험은 한국과학재단과 NASA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교는 운소분석장치를 제작·운영하고 있다.



강진욱(국문)

2월 8일 개최된 한국고전여성문화회 총회에서 4대 회장에 재선임 되었다.



문재숙 교수(한국음악)

3월 1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부문의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작고한 김죽파 가야금 산조명인에게 전수받은 문 교수는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수자를 선발하여 후학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광자 교수(간호)

1월 24일 열린 한국간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또한 2월 22일 웨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간호협회 대의원 총회에서는 이사로 선임됐다.



이상돈 교수(환경)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습지 보전과 2008년 람사총회 한국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화영 교수(식품영양)

2006년 미시간 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Outstanding Alumni)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영양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현재 한국노화학회 회장, 미국영양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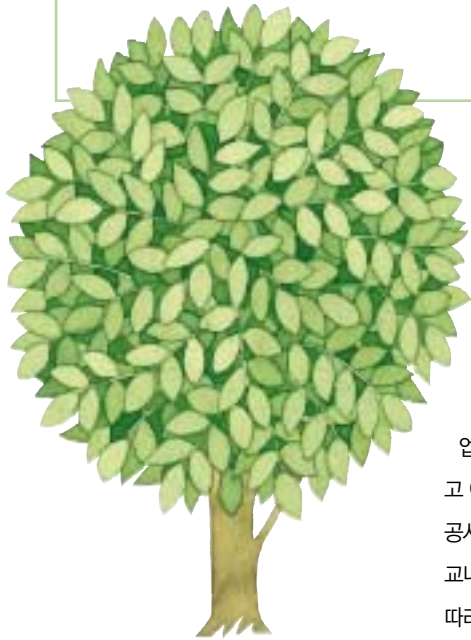


장남수 교수(식품영양)

지난 해 12월 국제생명과학회 주최 영양유전체학(Nutrigenomics)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ESCC 등 신축공사 끝나면 제자리에 복원 교내 '나무지도' 만들어 수목 보호



이화삼성캠퍼스센터(ESCC)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처(처장 조계숙 교수)는 공사부지 및 주변, 후문 및 서문 부근의 수목을 체계적으로 정비, 공사 후 복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교는 2004년부터 국내외 조경관련 컨설턴트와 교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른바 나무지도인 '수목현황도'를 작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등을 거치면서 개별 수목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만들고 여러 단계에 걸친 정비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는 신축공사 시 수목을 보호해야 하는 본교 방침을 따른 것으로, 교내 시설물은 그간 모두 수목 보호를 고려한 건축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ESCC 부지 주변의 수목 중 이식대상 수목은 북아현문 부근과 정문 진입부 복개상부, 럭키아파트 인근 학교부지에 모두 옮겨진 상태다. ESCC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연결램프에 해당되는 지역인 학생문화관 부근 숲과 국제교육관 및 부속유치원 앞은 공사 이후 수목이 복원되면 원상태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ESCC 건설본부장 박경희 교수는 "ESCC는 건물 지붕에 해당되는 곳이 녹지로 덮이고, 수직정원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물"이라며 "주차 차량의 대부분이 ESCC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감으로써 지상은 보행자 위주의 그린캠퍼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력개발센터 노동부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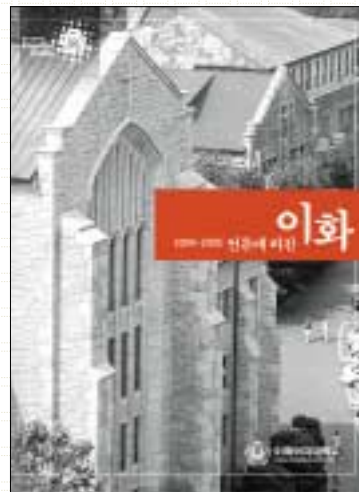


경력개발센터(원장 강혜련 교수)가 2월 22일 노동부의 2006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노동부가 대학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기능의 강화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국내 대학들에게 총 100억 원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는 총 229개 대학이 지원, 2.6:1의 경쟁 속에 87개 대학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 선정된 대학에 한해서는 후년도 사업 대상 선정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그간 E-커리어 카드 시스템 구축, 재학생 커리어 캠프 등 이화인들의 강력한 취업 도우미로 활약해온 경력개발센터는 이번 노동부 지원을 통해 재학생 훈련, 졸업생 지원, 산학 연계, 경력개발연구, 지역사회 기여 등 5개 사업을 실시, 이화인의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언론에 비친 이화' 발간



기획처(처장 박통희 교수) 홍보과는 2004~05년, 2년간 주요언론에 게재된 본교 관련 기사를 모아 '언론에 비친 이화' 책자를 발간했다. 대학종합평가 1위(2004년), 국가고객만족도 1위(2005년) 등 최근 본교가 거둔 성과들을 묶은 '최고에 도전한다', 변화하는 리더로서의 이화의 모습을 담은 '이화, 이렇게 달라진다', 본교 교수진들의 연구성과 및 활약상을 소개한 '이화

지성의 힘' 등이 신문 지면 그대로 소개되어 있다.

본교 재학생들의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 및 세상을 향한 과감한 도전기, 남들보다 한발 앞서 달리는 본교 부속기관들의 노력 및 성과,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이화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동문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이 총 190쪽으로 엮여졌다.

홍보과는 이 책자를 06학번 신입생 및 재학생, 교직원, 주요 동문을 비롯, 언론계 등 외부 인사, 본교 후원자들에게 배부중이며 입학처에서도 입학설명회 참석자, 전국 주요 고교 교장 및 교사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식품공학과·국어교육과·एको과학·리더십학 등 2006년도 신설학과들

식품공학과, 국어교육과 등 신설학과들이 올 봄학기부터 신입생을 받고 정식 교육을 시작했다. 공대 환경·식품공학부 식품공학과는 기존 식품영양학과에서 분리되어 식품의 가공·저장·유통 등 관련 산업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는 30명의 신입생을 선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표현·이해 교육인 교과교육과 언어(국어지식)교육, 문학교육 등을 통해 이들을 국어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대학원 협동 과정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학문 영역이 전공으로 신설됐다. 환경, 생태, 보건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자를 양성하는 에코과학(석사)과 리더십 이론 및 실제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할 고급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리더십학(석·박사)이 그것. 이 외에 비서학과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국제사무학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사회복지학과는 학부 과정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었다.

정보통신공학부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협정



공과대학(학장 신영수 교수) 정보통신공학부가 3월 21일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어바나 샴페인 주재) 전기/컴퓨터공학과와 교육 및 연구 분야 협정서를 교환(사진)했다. 이에 따라 본교는 일리노이 대학 측과 공동으로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강의를 위한 교수와 대학원생 교환, 각종 세미나와 학술회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연구원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선정

한국여성연구원(원장 오정화 교수)이 지난해 12월 1일 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로 재선정되어 향후

9년간 '지구적 문화변동과 아시아 여성학 학문체계 확립'에 대한 연구와 교과과정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여성연구원이 1999년 12월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지난 6년간 펼쳐온 '지구화와 여성'의 관련 연구 성과와 국내외 여성관련 연구 및 활동을 인정받은 것으로 치열한 경쟁 끝에 재선정에 성공했다.

국제갈등 사례분석 연구 시리즈 발간



국제통상협력연구소(소장 최병일 교수)가 한국을 둘러싼 세계의 갈등을 재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6개의 사례에 담아 '국제갈등 사례분석 연구 시리즈' (Ewha Series on Conflict Management)를 발간했다.

급변하는 세계화 과정에서 국제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능력이 21세기 한국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앞으로 추가 사례집을 발간해 연구 시리즈를 완성할 계획이다.

'컨버전스 리더'가 되자 '이화' 제27호 발간



입학처(처장 황규호 교수)가 고교생을 위한 입학홍보 책자인 ewh@ro 제27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의 주제는 '컨버전스 리더 (Convergence Leader)'. 21세기를 살아가는 이화인들이 시간, 공간, 인종, 언어의 모든 벽을 뛰어 넘어 자신만의 비전을 창조하

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방면에서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이야기꾼 이인화 교수(디지털미디어학부), 아나운서 정지영 동문(정치외교 98년 졸), 수퍼모델 김수현(국제학부 3년 재학)씨, 구수경(사회과학부 1년 재학)씨의 인터뷰와 세계적인 동물학자 최재천 교수(생명과학)가 미래의 이화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함께 소개됐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화인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경력개발센터, 120년 이화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캠퍼스투어, 입학홍보영상물 제작일기, 2007학년도 입학정보 등의 내용이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펼쳐져 눈길을 끈다.

'모차르트와 슈만의 오르간 음악'에의 초대 루드거 로만 초청 특강 및 마스터클래스 열려



음악대학(학장 정복주 교수)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자 슈만 타계 150주기를 기념하여 3월 13~17일, 김영의 홀에서 독일의 오르가니스트이자 슈투트가르트 음대 교수인 루드거 로만(Ludger Lohmann) 초청 특강 및 마스터클래스(사진)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로만 교수는 모차르트와 슈만의 오르간 음악을 옛 거장 바흐와 연관시켜 그 함수 관계를 조망해봄으로써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화 사랑으로 헌신한 아름다운 얼굴들 정년· 명예 퇴직 직원 5명

재무처와 총무처 등 30여년 가까이 학교의 안살림을 도맡아 온 이옥지 총무처부처장 등 3명이 정년 퇴직으로, 교내 곳곳의 학사업무를 수행하며 장기 근속한 백승옥 과장과 이상천 주임이 명예퇴직으로 이화를 떠났다(2월 28일자). 퇴임직원들을 위한 환송예배는 2월 22일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옥지



백승철



최병철



백승옥



이상천

구분	소속	직위	성명	근속기간	근무내역
정년퇴직	총무처	사무직원 (총무처부처장, 관재/후생복지)	이 옥 지	29년 11개월	예산과/회계과/ 재무처부처장(예산/회계/구매) 총무처부처장(관재/후생복지)
	총무과	기능직(방호)	백 승 철	21년 9개월	총무과
	시설과	기능직(난방)	최 병 철	29년	시설과
명예퇴직	사범대학	사무직원(과장)	백 승 옥	30년 1개월	비서실/학생처/인문대/ 대학원/사회대/ 입학과/사범대
	총무과	사무직원(주임)	이 상 천	31년	기획과, 관재과, 공과대학, 총무과

직원 인사 발령

소속	성명	직위	발령사항	발령일
기획처 홍보과	이덕규	사무직원(홍보실장)	보: 기획처부처장(홍보)	2006. 2.1
총무처 관재과	김영재	사무직원(과장)	보: 관재과장 겸 총무처부처장 (관재/후생복지)	2006. 3.1
중앙도서관	정락춘	사 서(과장)	보: 과장 겸 사서장	2006. 3.1
사회복지대학원	손종수	사무직원(과장)	명: 사범대학	2006. 3.1
사회과학대학	정경자	사무직원(주임)	명: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겸직	2006. 3.1

수상소식

지난해 12월 30~31일, 본교 교직원 5명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락춘



이재창



나선화



김수진



홍승렬

	수상자	포상취지
국민교육 유공 (2005.12.31)	정락춘(중앙도서관) 이재창(정보통신처 정보시스템개발과) 나선화(박물관)	국민교육을 위해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함
산학협력 유공 (2005.12.30)	김수진(연구처 연구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함
학생지도 유공 (2005.12.30)	홍승렬(경력개발센터)	대학생 학생지도(취업분야) 활동으로 대학 문화 창조 및 활성화에 기여

◆‘이화글빛문학상’ 제정◆



본교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으로 출판부와 학보사가 ‘이화글빛문학상’을 제정했다. 올해 제 1회 수상자를 선정하는 ‘이화글빛문학상’은 미래 작가를 꿈꾸는 본교 재학생 중 특출난 기량을 선보인 대상 1명에게 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응모는 2월 말에 마감했으며, 수상작을 선정할 후 5월 창립기념일에 시상할 예정이다.



이대학보 사진으로 이화의 역사를 비추다

생활관 지하 이대학보사 암실에 쌓여있던 필름들이 ‘이대학보 사진으로 보는 이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005년 12월5일 발간)를 통해 세상에 선보였다.

사진집 발간은 이대학보사 창간 50주년을 기념하면서 120년 동안의 이화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추진되었으며 사진집에는 1954년 학보 창간 이후의 취재자료와 이화역사관에서 제공한 총 27만여 장의 사진 중 시대별로 844매, 테마별로 267매가 수록되어 있다.

간행위원장을 맡은 이배용 이화역사관장은 “이화 120년을 학보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대학보 기자들이 찍은 사진은 그 당시의 대학 문화나 이화인들의 삶을 현장성 있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밝혔다.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문 열다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소장 김훈순 교수)가 이화-포스코관 554호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진과 석·박사 이상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소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라는 큰 틀 속에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현상에 대한 해석 및 갈수록 복잡해지는 미디어 산업에 전략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다. 이외에 출판사업, 영상컨텐츠 제작사업, 교육사업, 여성미디어전문직 Fellowship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다. 5월에는 개소식을 겸한 세미나도 마련한다.

국제한국입양 단체들과 진료협약 체결 진료비 감면 등으로 해외 입양인들에게 큰 도움



이화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건일)은 1월 10일 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INKAS:사무총장 정애리), 해외입양인 연대(GOAL: 사무총장 김대원), 뿌리의 집(원장 김도현 목사) 등 국제한국입양인 단체들과 진료협약을 맺고 국제한국입양인 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는 해외에 입양된 후 고국을 찾은 국제 한국 입양인들을 위한 보험수가 적용과 진료비 할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번 진료협약을 통해 고국의 병원을 찾은 해외 입양인들이 아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해 2월부터 해외 입양인들에게 진료비 감면과 병원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올 4월 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시민걷기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토를 녹인 따뜻한 나눔 이화의료봉사단 우즈베키스탄 선교의료봉사

17년째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화의료봉사단이 2월 3~14일 우즈베키스탄의 우르겐치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인술을 전하고 귀국했다. 올해 '우르겐치-이화의료봉사단' 참가자들은 성주명(내과) 단장을 비롯한 정구영(응급의학과)교수, 김형래(생화학)교수, 김한수(아비인후과) 교수와 전문의, 약사, 간호사와 학생 등 총 22명으로, 우르겐치 의과대학 및 인근 지역에서 진료와 선교, 특강 등의 지역봉사를 수행했다. 해외의료선교 봉사활동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과의 재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도 함께 했다.



간질집중검사실(EMU) 오픈 기념 심포지움

신경과학교실은 간질집중검사실(EMU) 오픈 기념으로 2월20일 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Update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Epilepsy' 라는 주제로 이화간질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서현숙 목동병원장, 최규광 신경과장, 간질전문 이향운 교수 등 의료진 120여명이 참여해 최신진료경향을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미국국립의료원의 저명한 간질전문가인 윌리엄 테오도르 박사(Dr. William H. Theodore)가 초청돼 해외 첨단 진료경향에 대한 정보 교환으로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간질집중검사실은 경련성질을 가진 환자들의 정밀진단과 간질수술 전 검사에 필수적인 시설로 신경과, 소아과, 방사선 및 핵의학과, 신경외과가 팀을 이루어 간질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초고속 64채널 3차원 CT 가동



목동병원(원장 서현숙)이 1월 9일부터 최첨단 Volume CT(진단방사선의료장비)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초고속

64채널 3차원 CT로 검사시간 10초 이내에 전신검사가 가능하며 진단의 정확성이 뛰어나 심장혈관(관상동맥)과 뇌혈관을 비롯한 각종 혈관과 대장 등을 실시간, 입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촬영 후 횡단면 영상을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 마치 해부학 도면 같은 고화질 영상을 보여 준다. 이 장비의 도입으로 관상동맥 질환과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우회혈관 협착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됐다.

목 동 병 원

2006년도 교수 워크숍 개최

2월 11~12일 양일간 '목동병원 발전전략'을 위한 2006년도 교수 워크숍이 열려 80여명의 교수진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KBS 최윤정 기자의 '미디어속의 이대목동병원'과 박개성 엘리오&컴퍼니 대표의 '이대목동병원의 10년후'라는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최규광 기획조정실장의 병원현황 설명과 서정완 외래진료위원장, 김광호 입원진료위원장, 유권 의무부총장의 각 부문 발전전략에 대한 발표 후 전체 교수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가 이화학술상(베스트닥터)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탁월한 연구 활동으로 의료원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동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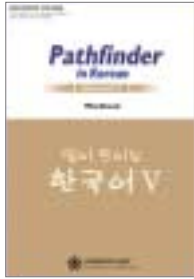
황규광 교수(의학)

지난해 12월 4일 제 11차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007년부터 2년 임기 동안 학회를 이끌게 된 황교수는 초대 총무이사를 지낸 바 있다.

윤하나 교수(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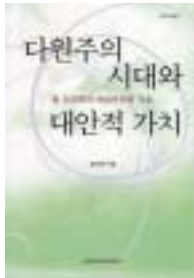
여성을 위한 성교육 지침서인 '내가 훑쳐보는 거울 속의 나'를 펴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뇨기와 전문의로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V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지음

‘말이 트이는 한국어 V’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로 1998년 ‘말이 트이는 한국어 I’이 출간된 이래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서 탄생한 완결편이다. 이전의 모든 과정을 마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 과정으로, 본 교재에 해당하는 ‘Student Book’과 연습문제를 담은 ‘Workbook’으로 나누어져 있다. (Student Book: 1만6천원, Workbook: 1만원)



다원주의 시대와 대안적 가치 정대현 지음

이 책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다원주의로 보고 다원주의 시대의 새로운 대안 가치로 여성주의적 가치를 선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원주의나 가치론의 의미 규정에서 시작하여 ‘나의 이룸과 다른 만물의 이룸은 맞물려 있다’는 ‘성기성물’ 명제에 근거한 모성 양식과 여성주의 가치에 도달하기까지 분석철학자이면서 오랫동안 여성학에 애정을 가져온 저자의 방대하면서도 치밀한 논리 전개가 돋보인다. (2만8천원)



양자 사인-고든 모형 안창림 지음

이 책은 이론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장론의 비섭동적 방법에 관한 책이다. 논의를 제한하기 위해 사인-고든 모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그 접근방법은 이 모형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2차원 양자장론에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이론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아 소립자물리나 응집물리 이론 분야의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만5천원)



철학적 산문 소흥렬 지음

수필보다는 더 깊이 있고 논증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철학적 논문이 지닌 형식이나 체제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들을 ‘철학적 산문’이라는 제목으로 모아놓았다. 논리나 인식과 관련된 철학적 주제에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낀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단상을 담고 있는 이 책에서 자연과 예술의 세계로 끊임없이 철학적 질문을 확장시켜 가는 老철학자의 광대무변한 정신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만2천원)



철학적 운문 소흥렬 지음

철학자는 시를 쓸 수 없는가. 평생 분석철학자의 길을 걸어온 저자가 오래전부터 가져온 이 화두를 직접 실천에 옮겼다. ‘철학적 운문’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시들 속에는 철학자로서의 삶과 인생 전체에 대한 저자의 성찰이 녹아들어 있다. 군더더기 없는 진솔한 언어로 표현된 이 시들을 통해 새로운 철학적 사유 형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9천원)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문화사 마크 포스터 지음, 조지형 옮김

이 책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문화사가 가지는 인식론적 조건을 명료하게 밝히고 역사학의 미래와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에 저자는 역사학계가 기피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역사는 실재이며 경험이라는 역사학계의 오랜 통념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포스트구조주의의 해체나 권력 연구가 오히려 중심화된 주제에 의해 왜곡된 역사 표상을 수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만2천원)

〈출판부 소식〉

◆ 신입생들에게 이화달력 무료 증정

출판부에서는 본교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2006 학년도 신입생들에게 ‘2006 이화달력’을 교재 배부 기간에(2월 23-4일) 증정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시리즈



한국의 전통 공예 : 도기 나선휘 지음

한국인의 삶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활 용기로 사랑받아온 도기에 관한 책이다. 빚살무늬 토기에서 푸레독에 이르는 무유 도기와 구림 도기에서 옹기에 이르는 시유 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간 한국 도자기 역사에서 그 존재가 부각되지 않았던 한국 도기의 담백한 아름다움과 예술품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1만2천원)

The Traditional Education of Korea

최완기 지음

〈한국의 전통교육〉의 영문판으로 서당과 향교, 서원과 성균관 등 한국의 전통 교육 제도를 기술하고 있다. (1만5천원)

Folk-religion : The Customs in Korea

최준식 지음

〈한국의 풍속 : 민간신앙〉의 영문판으로 무교, 제사, 동제 등의 전통 민간 신앙들을 살펴보고 있다. (1만5천원)

Money : Traditional Korean Society

원유한 지음

〈한국의 전통 사회 : 화폐〉의 영문판이다. 한국 화폐사의 발전 단계를 각각 화폐 유통 배경, 유통 정책과 영향 및 그 역사적 의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1만5천원)

총동창회 2006년도 정기총회

동창회 100년 역사담은 사진전 준비

2006년도 신입동창 환영회 및 정기총회가 3월 11일 (오후 2시) 이화·삼성교육문화회관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2006년도 사업계획안 승인과 결산보고, 김세영·이병림 전 고문 감사패 증정 및 새 고문 소개 등의 주요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역사의 동창회 사진전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인령 총장은 그간의 모교 소식들을 전한 뒤 "역사가 깊을수록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2007년

부터 14개 단과대가 11개로 재편되는 본교의 구조개혁을 상세히 설명했다.

신 총장은 "이 과정에서 아쉬움을 표하시는 동문들이 계시나 이는 단지 학사조직의 통합운영이며 합리화를 기할 뿐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세계 유수대학과 경쟁시점에서 이 같은 개편을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순희 총동창회장은 "지난 1년 동안 국내 지회 활성화 및 후원이사 초청워크숍, 창작발레 메시아 예수 공연, 해외지회 연합회들의 활동 격려, 이화인의 밤 행사와 아름다운 이화인 첫수상자로 부산 매실보육원장 박진숙 동창을 선정해 표창하는 등 많은 사업을 펼쳐왔다"며 "올해는 5월 이화찬양감사제와 100년

309명의 이화인, 서울·경인지역 교사로 임용

2006학년도 교사임용시험 응시결과 총309명의 이화인이 서울, 경인지역의 공립학교 교사로 진출하게 됐다. 사범대학(학장 주영주 교수)에 따르면 본교는 올 임용고시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99명, 서울시 교육청에 164명, 인천시 교육청에 46명이 합격함으로써 지방 및 사립학교를 제외한 수도권의 공립학교 임용고시에만 모두 309명의 교사를 배출했다.

주영주 사범대 학장은 "몇년째 임용고시 합격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이번의 대거 합격으로 전국 사범대 중 교원시험에 최다 합격자를 내온 본교 사범대의 명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309명의 합격자 중에는 사범대가 265명, 비 사범대가 44명이었으며 초등교육과가 61명, 과학교육과가 38명, 영어교육과가 35명, 사회생활학과가 30명, 특수교육과가 26명, 교육공학과가 21명, 수학교육과가 20명 순으로 합격자를 배출했다.



3대 이상 이화가족 찾기행사

창립 120주년을 맞은 본교가 이를 기념하여 3대 이상 잇따라 이화인을 배출한 '이화 가족'을 찾습니다. 본교 학부를 졸업한 동문 중 ▲어머니와 딸, 손녀 ▲시아머니와 며느리, 손녀 ▲시아머니와 며느리, 손자며느리 등 친가와 외가로 3대 이상의 직계가 이화인으로 이어진 가족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3대째 혹은 4대째 이화인을 배출한 이화가족 동문들은 모교로 연락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www.ewha.ac.kr 참조.

◇ 연락처 및 문의 : 대외협력처 02-3277-2056
홍보과 02-3277-2046~8

◇ 이메일 : imewha@ewha.ac.kr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이화가족 찾기 행사'

◇ 이화 3대, 혹은 4대 가족들의 이름과 나이, 가족간의 관계, 본교 졸업년도 및 전공학과 등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찍으신 사진 자료 등도 환영합니다.



동문 동정



지은희 동문(사회 69년 졸)

2월 27일, 덕성학원 이사회에서 덕성여자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2003년부터 2년 간

여성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김상희 동문(제약 76년 졸)

1월 31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한국여성환경연대 상임이사를 지낸 김 동문은 지속위의 4기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홍라영 동문(불문 82년 졸)

1월 17일 삼성문화재단 총괄 부관장으로 임명됐다. 홍 동문은 삼성미술관 리움과 로댕갤러리, 호암미술관, 삼성어린이박물관



등 4개 미술관과 박물관을 총괄하게 된다.



이화 법조인 19명, 판검사로 임관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본교 출신 새내기 법조인 19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비판사(10명)와 신임검사(9명)로 임관됐다. 본교 출신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총 28명으로 68%의 높은 판·검사 임관율을 기록했다. 이번 사법연수원 수료생 895명 중 판·검사 임관자는 215명이며 여성 임관자 100명 중 이화 출신은 20%로 이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그간 본교 출신 예비법조인들의 판·검사 진출은 전체 여성 임관자의 20% 수준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신임 검사 10명을 배출,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이화 법조인은 총 264명(군법무관 2명 포함)이며 이 중 판·검사 임관자는 올해 19명을 포함해 72명이다.

다음은 2006년 판·검사 임관자 명단.

〈법원〉 김경선(법학 01년 졸, 서울중앙지법), 김은교(영문 04년 졸, 춘천지법), 김효진(법학 04년 졸, 인천지법), 박지영(법학 02년 졸, 창원지법), 송미경(법학 03년 졸, 서울중앙지법), 신불매(법학 02년 졸, 대전지법), 우수연(법학 01년 졸, 대구지법), 차주희(법학 04년 졸, 대전지법), 허미숙(법학 04년 졸, 창원지법), 황진희(법학 99년 졸, 전주지법)

〈검찰〉 강선주(법학 98년 졸, 춘천지검), 김은혜(법학 00년 졸, 서울남부지검), 박은혜(법학 00년 졸, 창원지검), 송영인(법학 04년 졸, 의정부지검), 송정은(법학 99년 졸, 안산지검), 신승희(법학 99년 졸, 전주지검), 이정민(법학 01년 졸, 대구지검), 장서연(법학 06년 졸, 순천지검), 최선경(법학 03년 졸, 평택지검)

EGPP
Welcoming Festival
성황리에 개최

"Ewha Supports You!"



본교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이화의 건학 이념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시작한 세계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관련기사 4면)의 장학금 모금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외협력처 주관으로 열린 장학금 후원을 위한 EGPP Welcoming Festival(3월 16일 ·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는 이화학당 윤후정 이사장, 정의숙 명예이사장, 신인령 총장, 윤순희 동창회장 등 본교 인사를 비롯, 기업계, 정치계, 교육계의 후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EGPP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면서 EGPP 파트너로서 결속과 화합을 다졌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또 EGPP 장학생들과 출신국가의 주한 외교사절 등 국내외 귀빈 540여명이 참석하여

이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이희호 여사는 "EGPP 장학생들을 보니 1954년 8월 여의도 간이비행장에서 미국 테네시주로 유학을 떠났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라를 위해 일했던 것처럼 모두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EGPP장학금 후원자 명단

기업 및 기관 공간그룹(대표 이상림) 4000만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 신창재) 4000만원, 삼성증권(대표이사 사장 배호원) 1000만원, 서남재단(이사장 이관희) 4000만원,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문국현) 1000만원, 일진그룹(회장 허진규) 4000만원, 조흥은행(은행장 최동수) 8000만원,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이사장 정원식) 8000만원, United Board \$5,000.

개인 및 단체후원 김병수(이영희 5기, ALPS 13기) 1000만원, 김영희(이영희 60기) 1000만원, 본교 교직원 5명(김은미 국제대학원장, 박동숙 언론홍보영상학전공 교수, 이재경 국제교육원장, 최은봉 입학처부처장(상담), 이덕규 기획처부처장(홍보)) 4000만원, 박명희(국어국문 75년졸) 1000만원, 박정옥(ALPS총동창회장, 생물 62년졸) 1000만원, 신란숙(정치외교 58년졸) 1000만원, 전효숙(헌법재판소재판관, 법학 73년졸) 1000만원.

장학금 기탁소식

"어려운 학생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약대교수들 장학금 1억8천만원 약정

약학대학 교수들이 가계곤란 약대생들을 위한 장학금 총 1억8천만원을 약정했다.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는 김춘미 약학대학장은 정년을 앞두고 장학금 3천만원을 선뜻 내놓았고 이 소식에 9명의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은경, 권영주, 최 선, 박혜선, 이화정, 하현주, 김춘미, 이공주 교수

교수들이 앞다퉈 장학금을 약정하여 총 1억8천만원의 장학금을 약대교수 장학금으로 마련하게 된 것.

김춘미 약학대학장은 "제자들을 위해 장학금을 모으는데 동참한 교수님들, 특히 젊은 교수님들께서 적

지 않은 금액을 선뜻 약정해 주셨고 연구년이 라 학교에 안 계신 이경림, 김화정 교수님께서도 기꺼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들의 뜻을 담은 장학금이라 명칭도 약대교수 장학금으로 정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약정자명단 김춘미 약학대학장, 이공주 교수, 김화정 교수, 박혜선 교수, 권영주 교수, 서은경 교수, 이화정 교수, 최 선 교수, 이경림 교수, 하현주 교수

이화인닷컴 아름다운 기부 E-pro(2%) 장학금 기부자 명단

현정아(영어영문 95년졸) 4만원, 박지영(중어중문 98년졸) 2만원, 정진현(통계 01년졸) 1만원, 제소영(의류직물 01년졸) 1만원.

선배와 스승, 지역사회의 온정 담은 장학금 기탁 이어져

교육학과 장본영 동문(88년 졸)은 장학금 1000만원을 약정하고 2006학년도 2학기부터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학전공 전영신 동문(97년 졸)과 문희선 동문(98년 졸)도 환경학전공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3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식품영양학전공 김미경 교수가 400만원을, 국제사무학전공 전지현 교수가 100만원을 2006학년도 1학기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화-포스코관 카페테리아 '이화사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1000만원을 보내왔다.



이화 동문CEO 초청 모임

경제 분야에서 선도적 활동을 하고 있는 본교 출신 CEO모임 발족을 위한 준비 모임이 2월 10일 총장 공관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이화 출신 CEO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화와 사회를 위해 더 활발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참석자 명단.

정명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겸 대구중앙청과(주) 대표이사(의류직물 69년출), 강혜숙 (주)한영강가루 대표이사(화학 76년출), 박경실 (주)파고다아카데미 사장(체육 78년출), 남성희 대구보건대학학장 겸 국제로타리3700지구 총재(신문방송 78년출), 박상해 (주)라이트써치 대표이사(교육심리 80년출), 김아숙 이코퍼레이션 대표이사(영어영문 82년출), 전정희 농수축산 신문 발행인(체육 83년출), 최중희 (주)오월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신문방송 84년출), 객미경 ATM 인터리어 대표이사(체육 87년출), 한경희 (주)한경희 스킨 청소 대표이사(불문 87년출).

식품공학전공 발전기금 1억원 유치

이번 학기에 신설된 공과대학 환경식품공학부 식품공학전공(전공주임교수 김광옥)의 발전을 위해 익명의 기부자가 2월27일 1억 원을 기탁했다. 익명의 기부자는 식품공학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밝게 전망하며 본교에 식품공학전공이 신설된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앞으로 식품공학전공의 발전 및 활성화

를 위해 사용된다. 식품공학전공은 2007년 첫 전공 자원자들을 받게 되며, 올 한해 신설 기념 축하행사 와 학술기념 강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용복 이와야마 칠예미술관 회장 작품기증

1월 10일 전용복 이와야마 칠예미술관 회장이 자신의 작품 3점을 본교 박물관에 기증했다. 칠예가인

교내 각 기관 발전기금 기탁 현황
(약정기간 : 2005.12.23 ~ 2006.2.7)

신공학관건축기금 모금
김동수(환경학전공) 500만원, 박선기(환경학전공) 300만원, 이상돈(환경학전공) 300만원

사대교육관건축기금 모금
황의란(교육 74년출) 100만원, 허희옥(교육공학 89년출) 100만원, 한상미(영어교육 75년출) 100만원, 수학교육과 47(수학교육 79년출) 300만원, 박애영(수학교육 80년출)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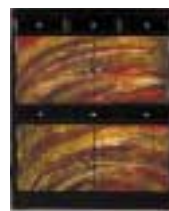
의학전문대학원발전기금 모금
김화숙(의학 71년출) 2000만원

간호과학관건축기금 모금
민소영(간호과학 89년출) 6만6천원

임상치의학대학원발전기금 모금
조민영 50만원, (주)대한바이론 30만원

탁아소(이화어린이집 기금) 모금
정명금(의류직물 69년출) 1000만원

전 회장은 부인 정하영 동문(정치외교 75년출)의 모교인 이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고국에서의 특별전시 '전용복 옷칠 21C'展(갤러리 라메르, 1월 5~9일)을 연 것을 계기로 이번 현물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전 회장은 2005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옷칠 장식장과 회화를 설치해 세계 정상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화삼성캠퍼스센터(ESCC) 건립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 2005.12.23~2006.2.7)

국어국문 국어국문학과 12기(61년출) 200만원, 권영해(61년출) 100만원, 차현실(64년출) 300만원, 정혜숙(73년출) 200만원, 김옥진(75년출) 30만원, 서성민(75년출) 100만원, 이혜선(75년출) 100만원 **영어영문** 남운선(60년출) 100만원, 이선숙(60년출) 10만원, 남경자(62년출) 10만원, 방삼진(62년출) 10만원, 신현업(62년출) 10만원, 안춘식(62년출) 10만원, 이혜진(62년출) 10만원, 정인숙(62년출) 10만원, 홍부미(62년출) 10만원, 안정옥(69년출) 10만원, 강화정(73년출) 50만원, 고은경(73년출) 50만원, 김덕희(73년출) 50만원, 김주실(73년출) 50만원, 남덕자(73년출) 100만원, 엄정희(73년출) 50만원, 이형숙(73년출) 50만원, 장진수(73년출) 50만원, 정봉숙(73년출) 50만원, 정영선(73년출) 50만원, 진선혜(73년출) 50만원, 한영숙(73년출) 50만원, 홍순미(73년출) 50만원, 황관선(73년출) 50만원, 황점순(73년출) 50만원 **독어독문** 조인숙(68년출) 100만원, 윤민희(69년출) 100만원, 박기원(70년출) 100만원, 목승숙(91년출) 100만원 **행정** 황원경(85년출) 100만원 **문헌정보** 문헌정보학과 7기(69년출) 300만원, 문헌정보학과 10기(72년출) 300만원, 문정자(63년출) 300만원, 김희자(65년출) 300만원, 남혜정(70년출) 100만원, 서경은(79년출) 100만원, 문화사(81년출) 300만원 **신문방송** 신문방송학과 12기(75년출) 200만원, 김민아(65년출) 10만원, 김영순(73년출) 50만원, 남경현(73년출) 50만원, 박옥희(73년출) 50만원, 김명옥(76년출) 15만원, 김연수(76년출) 15만원, 김연숙(76년출) 15만원, 김영희(76년출) 15만원, 김유성(76년출) 15만원, 김재희(76년출) 15만원, 신귀영(76년출) 15만원, 신연숙(76년출) 90만원, 오홍숙(76년출) 15만원, 이경숙(76년출) 100만

원, 이선자(76년출) 15만원, 임해선(76년출) 15만원, 장성혜(76년출) 30만원, 정계영(76년출) 15만원, 최연이(76년출) 15만원, 김현주(81년출) 75만원, 오기애(85년출) 50만원, 오영경(85년출) 100만원, 이남희(85년출) 100만원, 이인숙(85년출) 20만원, 김정민(91년출) 30만원, 김희정(91년출) 30만원 **사회** 고혜경(77년출) 100만원, 김영희(77년출) 100만원, 김정기(77년출) 100만원, 문명재(77년출) 100만원, 박순원(77년출) 100만원, 오숙영(77년출) 100만원, 정영애(77년출) 50만원, 김민재(81년출) 50만원, 신경희(81년출) 50만원, 최신애(81년출) 75만원 **수학** 수학과 18기(74년출) 200만원, 강영자(76년출) 1000만원 **물리** 김경자(68년출) 500만원, 김순(68년출) 100만원, 나수복(68년출) 100만원, 이주희(68년출) 100만원, 정해경(68년출) 100만원 **생물** 송기선(72년출) 50만원, 윤여옥(72년출) 50만원, 조명순(72년출) 100만원, 한경숙(72년출) 50만원, 박정희(73년출) 100만원, 장문순(73년출) 50만원 **유아교육** 이은화(59년출) 500만원 **영어교육** 진정자(76년출) 100만원 **사회생활** 김수영(88년출) 10만원 **경영** 조정희(Angie Kim)(76년출) 30만원 **의학** 이유허(84년출) 300만원 **가정관리** 조영무(Youngmoo Kim)(66년출) \$1,000 **이영희** 김혜란(39기) 5000만원 **교직원** 김동철(연문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100만원, 김진호(경영학전공) 180만원, 조금희(회계과, 약학 77년출) 400만원 **기타** 변희정 2만원.

● 바로잡습니다

72호에 실린 박용순(이영희 52기) 6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II) 신촌 캠퍼스 시대를 연 제6대 당장 아펜셀러(1885-1950)

반석위에 터 닦고 이화의 집을 새로 짓다

이배용(이화역사관장·사학과 교수)



이화전문학교 설립자 제 6대 교장
앨리스 R. 아펜셀러. 1922년
이화학당 당장으로 취임한 후 탁월한
추진력으로 1925년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신촌캠퍼스 시대를 열었다.

1885년 서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땅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으니 바로 앨리스 R. 아펜셀러(Alice Rebecca Appenzeller)이다. 그 아기는 자라서 이화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 그야말로 오늘날 이화가 있도록 반석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이 화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고마우신 스승이다.

그의 부친 헨리 아펜셀러(Henry Gerhart Appenzeller)는 정동교회와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한국인을 위한 복음과 교육에 앞장선 분이다. 앨리스 아펜셀러는 아버지가 세운 정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지냈지만 학업을 위해 동생,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메사추세츠주 웰슬리 대학을 졸업하고 교편을 잡다가 1914년 해외여성교부의 선교사로 임명받아 이화에 부임하였다.

굳은 신념과 열정의 소유자였던 그는 1922년 10월 6대 당장에 취임했으며 이화를 자신의 모교인 웰슬리 대학교 같은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전 문적인 여성지도자 교육을 위해 대학과를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하

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교육령'에 의거해 조선인에게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제도를 허락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대학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렇듯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국 일제가 허용한 전문학교 인가를 받게 되었다. 1925년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설립은 이화가 각 분야 전공을 갖춘 여성전문 고등교육기관(College)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전문교육의 실시로 이화가 양적·질적인 팽창을 하게 되자 새 교사(校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펜셀러 교장은 선교사 건축 모금운동을 시작하여 국내외 친지들의 사랑의 결실로 현재의 신촌 캠퍼스를 마련하고 1935년 3월에 이전하였다. 신촌 캠퍼스 시대의 개막은 단순한 공간확장의 의미를 넘어 이화가 종합대학에의 꿈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었고 더 나아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화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평소 '이화는 한국인의 손으로 그것도 반드시 이화가 키워낸 이화인의 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아펜셀러 교장은 1939년, 자신의 제자였던 김활란(金活蘭) 박사에게 교장직을 넘김으로써 이화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교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은 1940년 미일관계의 악화로 미국으로 잠시 귀국하여 한인들을 위한 선교 사업에 종사하다가 해방이 되자 1946년 이화에 복교하여 명예총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1950년 2월 '반석위에 집을 지으라'는 주제로 채플을 인도하던 아펜셀러는 갑자기 뇌일혈을 일으켜 단상에서 졸도했다. 이후 혼수상태에 들어가 그날 오후 6시에 서거했는데, 향년 66세였다. 장례식은 선생의 생전의 큰 공로를 기려 사회장으로 거행되었고, 이화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진정으로 한국과 이화를 사랑했던 아펜셀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세워진 비석에는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 묻히어 한국의 흙이 된 고(故) 아펜셀러 선생의 묘"라고 써어 있다.



1



2

1. 신촌캠퍼스로의 이전(1935).
이화학당 설립자 스크랜턴 부인의
사진을 품에 안은 아펜셀러 교장이
신촌 캠퍼스 본관 앞에 당도한 후
환희의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2. 양화진 외인묘지의 아펜셀러 비석.